

주일 예배 11시

2017년 11월 5일 (첫째 주일)

\*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

예배로의 부름

사회: 김성진 집사

\*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(28장) 다 함께

\*기도 사도신경 다 함께

\*교독문 60번 다 함께

\*찬송 주 예수 우리 구하려(346장) 다 함께

기도 하재혁 집사

찬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(289장) 다 함께

말씀 고명환 목사

-그리스도 예수: 1. 그분이 계실 때(요한복음 2장 11절)

\*찬송 주 예수 넓은 사랑(497장) 다 함께

교회소식 담당자

기도 담당자

교회소식

-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. 꼭 참여해 주세요.

- 다음 주일(12일)에 성찬식을 가집니다. 마음의 준비 바랍니다.

- 금주 읽을 성경: 시편 24-30편, 요한복음

- 기도해 주세요- 1.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
- 2.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
- 3.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
- 4.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

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, 수요일 오후 7시, 월-금 오전 5시20분, 토요일 오전 6시

순례자의 목상

내 영혼 속에 주님이 내 주님 아니시고,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힘 안 되신다면, 우리는 다 짓밟힌 생활 되고야 맙니다.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어둠과 죄악과 갖가지 세상의 그 무엇에 짓밟히고야 맙니다!

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그 마음은 이렇게 짓밟히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까지 돌아옵니다.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. 성전된 마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.

주님께서는 가인이 준비한 것은 안 받으시고, 사무엘상 15 장의 이런 번제와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.

그러나 사람이 타 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를 그 사람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,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고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줄 압니다. 그의 섬김은 주님 앞에 소중한 섬김이 되었다는 뜻인 줄 압니다.

오늘 여러분!

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성전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.

성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습니다. 우리의 지나간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는 놀라우신 보혈의 은총이, 십자가로 말미암은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

**주님의 품**

김은주

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 
함께 해주시고,  
결정해주시고, 말씀해주십니다.  
늘 돌아오는 따뜻한 집처럼  
항상 주님의 품은  
저의 안식처입니다.

사랑하는 주님!

늘 그곳에서 지켜보시며,  
함께 하시는 가운데  
어느 길을 가든지  
힘이 되어주시는 주님.

**지키고 싶은 마음**

여성준(고2)

봄바람, 여름 폭풍우  
낙엽의 계절 그리고 간긴 겨울밤  
역시 제게는 주님이셨습니다.

제게 일어나는 사소한 그 모든 일조차  
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,  
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 
살고 있습니다.

지금 힘이 드는 일이 있어도,  
그것은 언젠가 더 큰 목적으로  
저를 성장시켜주시기 위한  
주님의 준비라는 것을  
잘 알고 있습니다.

제 마음 아시고 다가오신 분은  
주님뿐이셨습니다.  
주님만이 제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.

제 마음에 빛이 되셨고,  
시원함이 되셨고  
풍족함이 되어주셨습니다.  
주님을 향한 그리움에  
그 긴 밤이 채워졌습니다.

어린 시절, 동생들과 손잡고 처음 가본  
교회 예배당에서 느꼈던  
그 주님의 인자함은  
세상의 풍파에 치여  
힘들다는 변명 앞에  
잠시 잊고 살았던 저를  
돌아온 탕자처럼  
항상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.

남은 길,  
주님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 
지키고 싶습니다.

그러한 저의 주님은

“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 
예수를 바라보자!” (히브리서 12장 2절)



**PALOUSE KOREAN CHURCH**



2017년 11월 5일(44주) 31권-44호

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 
Pullman, WA 99163 Phone 978-807-4092

Website: pullmanpkc.org